

2 종합

응과대 융합전공 신설 양자정보·우주인공지능

양현준 기자 yhj1001@khu.ac.kr

【국제】 양자정보, 우주인공지능 융합전공이 신설돼 운영 중이다.

응용과학대학은 양자정보 융합전공 신설 배경에 “양자정보 기술은 가장 유망한 현대산업 분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우주인공지능 융합전공에 관해서는 “인류의 활발한 우주 진출을 통해 빅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주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하고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설된 양자정보 및 우주인공지능 융합전공은 다전공 신청만 가능하다. 보통 융합전공 신청은 단일전공과 다전공으로 나뉜다. 단일전공의 경우 해당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 소속 학생만 신청 가능한 반면, 다전공은 본교 전체 학부과정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융합전공의 경우 타학과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학기는 지난 4월에 신청을 받아 운영 중이고, 2학기에는 10월에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양자정보 융합전공은 응용물리학과 주관으로 응용수학과, 응용화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교육과정을 융합해 운영한다. 기존 응용과학대학 전공과목에 양자물리와 양자정보, 양자컴퓨팅, 양자정보응용과 웹/파이선 프로그래밍, 오픈소스SW개발방법 및 도구 등 응용을 위한 새로운 과목이 추가돼 전공기초 5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20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우주인공지능 융합전공은 우주과학과 주관으로 컴퓨터공학과 과목과 합쳐졌다.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우주탐사인공지능프로젝트 등의 과목이 추가돼 전공기초 3과목, 전공필수 7과목으로 이뤄졌다. 전공선택엔 우주분야와 인공지능 분야로 나뉜 총 28개의 과목이 있다.

이광조(응용물리학) 교수는 융합전공 신설에 대해 “양자정보 분야는 융합적이면서도 세부 분야가 다양하기에, 자신의 전공에 대한 창의성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면 융합전공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재(우주탐사학) 교수는 “학생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정보·우주인공지능 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

학부/전공명		편성 교과목 현황						A+B	
		전공기초		전공필수(A)		전공선택(B)			
학부	전공명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다전공	양자정보	5	15	5	12	20	56	25	68
	우주인공지능	3	9	7	18	28	84	35	102



지난달 28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베타 열람실에서 취임 후 첫 총장과의 대화가 열렸다.

(사진=황인찬 기자)

1면에서 계속 →

김 총장은 “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완비는 돼 있지만 기술적인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비해 교통 환경이 개선된 현재엔 셔틀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양캠퍼스 이동시간 외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 여러 해결책이 존재하기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현지(국제학 2024) 씨는 “대학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 총장은 “현 시대에 맞춰 대학 행정도 지능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 학술 연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접근성이 핵심”이라며 “학술 자료에서 스마트 캠퍼스까지 온라인에서 접속하도록 구축해 우리학교가 축적한 우수한 데이터를 구성원이 쉽게 이용

“없는 것 창조하는 인재돼야”

김진상 총장, 신입생과 격의없는 대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김미소(한국어학 2021) 회장은 “등록금 위주의 재정구조 한계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등록금 동결 이후 사립대 재정 상황이 국립대에 비해 악화된 건 사실”이라며 “현재까진 잘 유지해왔지만 올해 의료원 재정난이 겹쳐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교에 갖춰진 시스템을 이용하고, 대학은 지식을 창조하는 곳인 만큼 지식을 활용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원(스마트팜과학 2016) 씨

는 “연구실에서 연구하며 느꼈던 점은 최근 급격한 최신기술 발전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선 학교 자체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스탠포드 대학과 같은 외국 대학 사례를 참고해 긴밀한 산학협력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컴퓨터 언어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을 보며 기술발전 속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캠은 다른 서울권 대학에 비해서도 광활한 부지에 상대적으로 산학협력에 유리한 입지를 지녔다”며 “이제 오랫동안 그려온 국제캠 산학협력의 청사진을 실행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영림 기념관 개관

경희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이란으로 건너가 왕실 주치의로 18년간 활동하며 한의학의 세계화를 앞장섰습니다. 평생 수집한 미술품과 공예품을 우리학교에 기증했으며 이런 원장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전시하고자 중앙도서관 2층에 <이영림 기념관>을 마련했습니다.

- 개관일시: 정기개관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 10:00~17:00
- 위치: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 휴관일: 토요일, 공휴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관람소요시간: 약 30분 ~ 1시간
- 입장료: 무료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